

경찰, 광주효은요양병원·장성군보건소·소방점검업체 압수수색

환자 관리·부실 감독 등 전방위 수사 확대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경찰 수사가 장성군, 소방점검업체, 해당 병원의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이 애초 '관피아'(관료 마피아) 적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참사를 들여다본다는 구상을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해당 병원의 안전 의무 위반 등 불·탈법 행위 뿐 아니라 민·관 유착 비리 수사와 맞물려 다른 요양병원 등 동종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

◇보건소, 소방점검업체, 병원 압수수색=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을 물어 이사문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성군 보건소, 효사랑병원 소방점검업체, 이 대표가 실질적 소유주인 효은의료재단 산하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인·허가 및 시설 운영 및 점검, 환자 유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부인과 딸이 각각 이사장을 맡고 있는 효은·효은의료재단의 실질적 소유주인 점에 주목, 해당 병원에서 확보한 서류 등을 검토해 적정 근무인력, 환자 유치 및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운영 과정의 불·탈법 행위를 면밀히 따져본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사실상 이씨가 소유주인 두 병원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편법으로 환자를 주고받아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점 수사 내용은

- 효은의료재단 산하 장성효사랑요양병원 5월 29일 압수수색
- 효은의료재단 산하 광주효은요양병원 6월 3일 압수수색
- 환자 신상 담긴 서류 빼돌린 간호사 2명 긴급체포
- 환자 주고받거나 회계장부 조작 여부 등 수사
- 장성군보건소-요양병원 인허가 사항·관리감독 위법 여부
- 도곡방재엔지니어링-월 1회 소방점검 제대로 했는가 조사



효은·효은의료재단은

- 2007년 11월 장성에 효사랑요양병원 개원(효은의료재단)
- 2011년 7월 광주 신가동에 효은요양병원 개원(효은의료재단)
- 효은한방병원 개원 예정 등 7년 사이 가파른 성장세
- 공사중인 장례식장 추정 건물 놓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

경찰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부실한 안전 점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과의 유착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도의 안전 점검 지시에도, 지난달 21일 해당 병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 경찰은 같은 날 이뤄진 민간 소방점검 대행업체의 점검 과정에서도 부실함이 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분석중이다.

경찰은 특히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간호사 김모(여·47)씨 등 2명이 병원 환자 서류 등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불황에도 잘 나간 비결은? 경찰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효은의료재단의 가파른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 효사랑병원의 경우 이씨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효은의료재단 산하 병원으로 지난 2007년 11월 장성에 문을 열었다. 이씨 딸이 재단 이사장인 효은의료재단은 지난 2011년 7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245개의 침상을 갖춘 4층 규모의 효은요양병원을 개업했다.

효은의료재단은 여기에 비슷한 규모의 효은한방병원을 건립중이며 인근에 장례식장 추정 건물까지 추진중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요양병원·한방병원·장례식장 등이 한꺼번에 들어서게 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재단측의 불·탈법 및 민·관 유착 비리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인 장례식장 추정 건축물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재단이 한방병원 완공에 이어 장례식까지 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신가동 효은요양병원.



효은요양병원 인근에 개원 준비 중인 효은한방병원.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하필이면 명함 붙인 곳... '딱 걸렸네'

선거사범 전담 경찰 아파트에 부착 적발

"하필이면 경찰관이 사는 아파트에 선거 홍보용 명함을 붙이다니. 그것도 선거사범 수사전담 경찰관의 아파트에..."

광주 A아파트에 사는 광주 북부경찰서 B경찰관에 지난달 16일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에 C시의원 후보의 약력 등이 담긴 선거홍보용 명함이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B경찰관은 유리테이프로 붙여진 명함을 떼어낸 뒤 곧장 사무실(경찰서)로 향했고, 사무실에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신고전화가 접수 돼 있었다. C시의원 후보의 약력 등이 적힌 선거홍보용 명함이 수 십 곳의 상가 유리창문에 붙여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가본 결과, 상가 유리창에 C시의원 후보의 명함이 유리테이프로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순간 B경

찰관의 머리 속엔 자신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C시의원 후보의 명함이 떠올랐다.

B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들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500세대 이상의 출입문에 C시의원 후보의 명함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B경찰관은 곧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B경찰관은 500세대에 부착된 명함을 수거한 뒤 유리테이프에 남아 있는 지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또 A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선 C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용으로 보이는 이가 단지 안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로 특정된 C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업체 대표 구속 기소

해양안전설비 이사·차장도

청해진 팀장은 불구속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이사·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등이, 신씨와 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들은 가스 팽창, 안전밸브 효력, 압력 시험 등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양호'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소 인원 6명을 투입해 5일가량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원은 2

명에 불과했고 점검 기간은 1.5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경력이 없는 데도 자격증을 빌려 우수사업장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1년마다 실시되는 해양수산부의 정기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다.

본래 선장 신씨와 해무팀장 박씨는 평소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하위용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표=김병관기자 dss6116@

당구장 소란 피우던 40대 취객, 출동 경찰관에게도 주먹질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40대 취객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경찰서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4)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전모(41)씨의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 역전지구대 소속 김모(51)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폭행 등 전과 15범인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 조상신인 주신(酒神)이 들어와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경찰관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형질수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커피숍" 매매

- 봉선동 한일병원 근처
- 1층 20평(실평), 최신 인테리어
- 보 2천만원에 월 90만원
- 비/권리금 4500만원
-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 문의 -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창가 코너
- 전체 울수리, 양동~하천쪽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
- 문의 - 010,3605,5000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초봉 200만원부터
여 : 초봉 150만원부터

사무, 입장 활동 및 기타